

제약 없이 자유롭게 관광할 수 있는 환경으로

익산시, 편의시설 늘리고 무장에 열린관광지 조성 본격화
교도소 세트장·고스락, 무장에 관광환경·체험형콘텐츠 개발

익산=고운영 기자

익산시가 관광지 탐방객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무장에 열린 관광지 조성사업'을 본격화한다.

14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주최한 '열린관광지 조성 공모 사업'에 교도소세트장과 고스락 등 2곳이 선정돼 국비 5억원을 확보했다.

시는 올해 국비 5억원을 포함해 총사업비 13억7천5백만원을 투입해 무장에 보행환경과 주차환경 개선, 휴게시설 조성, 휠체어와 유도차대여소 설치 등을 진행한다.

장애인, 영유아 동반자, 노약자 등이 관광지 이용에 불편함이 없는 관광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또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해 여행자에게 특별한 추억을 제공할 계획이다.

전문가의 맞춤형 현장 상담을 거쳐 올해 상반기에 실시설계를 마치고 착공해 연내 사업 완공을 목표로 추진한다.

연간 15만명이 찾는 인생샷 명소 교도소세트장과 4천여개 향아리와 소나무가 멋진 고스락은 지역의 대표 관광명소지만 휠체어나 유모차를 동반한 관광객들을 위한 이동 동선이 확보되지 않아 취약계층의 방문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김형훈 문화관광산업과장은 “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 누구나 제약 없이 자유롭게 관광할 수 있는 열린 환경을 구축해 여행의 즐거움을 선물하고 나아가 500만 관광도시 익산 조성에 기틀을 다지겠다”고 말했다.

한편 열린관광지 조성사업은 장애인, 고령자, 영·유아 동반가족 등 이동 취약계층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기존 관광지를 개보수하고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체험형 콘텐츠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익산시, 농산물가공 창업 지원 나서

익산시가 농산물종합가공센터를 통한 농업인의 가공 창업을 적극 지원한다.

시에 따르면 농산물종합가공센터는 착즙, 농축, 추출, 건조, 분쇄, 뒤음, 착유, 반찬, 베이커리 장비 등으로 구성돼 소비자가 원하는 제품생산이 가능하다.

농산물가공 전담 인력이 배치돼 창업계획 단계부터 실행에 이르기까지 시행착오를 줄이고 현실적인 목표설정과 농산물가공 제품화가 가능하도록 지속적인 코칭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6개 유형의 HACCP 인증을 마쳤으며 올해 1개 유형을 추가해 가공센터 생산제품의 안전성을 높이고 학교급식 입점 등 판로 확대가 가능하도록 행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농산물가공센터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농산물가공 창업보육 교육 이수'와 '유통전문판매업 등록'을 갖춰야 하며 이를 위해 다음달 5일까지 올해 1기 농산물가공 창업보육 교육생 30명을 모집한다.

농산물가공 창업보육 교육은 2월부터 4월까지 총 13회에 걸쳐 농산물가공 창업 절차부



터 가공이론, 식품위생법, 유통·마케팅, 세무, 가공 실습 등 분야별 지식 습득이 가능한 실무과정으로 진행된다.

앞서 해당 과정을 수료한 후 창업한 농업인들은 가공센터를 통해 40여 가지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로컬푸드, 익산물, 학교급식 입점, 직거래 판매로 매일 농외소득을 창출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올해 첫 창업보육 교육에 창업을 희망하는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며 “향후 가공센터를 통해 경쟁력 있는 농식품 가공 창업 농업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갈겠다”고 말했다.

/박영규 기자

남원시, 설 명절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운영

남원시는 설 명절을 맞아 직거래장터를 운영한다.

시에 따르면 민족 대 명절인 설이 다가옴에 따라 지역 우수 농·특산물 판매를 위해 설 명절 선물산업전 참가와 온라인 쇼핑몰을 통한 홍보·판매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남원시 로컬푸드 직매장에서도 자체적으로 설 명절 농·특산물 판매행사를 갖는다.

수도권 및 서초구청, 구로구청 등 자매결연 도시에서 추진 예정이었던 오프라인 직거래장터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취소하고, 수도권 결연도시와 협조해 비대면 온라인 홍보·판매 특별행사를 추진한다. 이 밖에 남원시 농특산물 쇼핑몰인 남원사이버장터(www.namwonlove.co.kr)와 전북도에서 운영하는 거시기장터(www.jbplaza.com), 우체국에서 운영하는 쇼핑몰(mall.post.go.kr)에 남원 농·특산물 남원브랜드관을 개설, 설맞이 특별 기획전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판매 활성화를 위해 할인쿠폰 발급, 포인트 적립, 택배비 지원 등도 함께 추진한다.

주요 판매물품은 제수용품으로 사용될 딸기, 사과, 배, 김부각, 추어탕, 한과, 떡국떡, 꿀, 장류, 참기름, 목가, 허브 선물세트 등이다.

시 관계자는 “전국 소비자들에게 남원 농·특산물 우수성을 홍보하고, 판매가 확대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영규 기자

남원시농특산물판매장터(www.namwonlove.co.kr)와 전북도에서 운영하는 거시기장터(www.jbplaza.com), 우체국에서 운영하는 쇼핑몰(mall.post.go.kr)에 남원 농·특산물 남원브랜드관을 개설, 설맞이 특별 기획전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판매 활성화를 위해 할인쿠폰 발급, 포인트 적립, 택배비 지원 등도 함께 추진한다.

주요 판매물품은 제수용품으로 사용될 딸기, 사과, 배, 김부각, 추어탕, 한과, 떡국떡, 꿀, 장류, 참기름, 목가, 허브 선물세트 등이다.

시 관계자는 “전국 소비자들에게 남원 농·특산물 우수성을 홍보하고, 판매가 확대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영규 기자

남원시, 자가격리자에 선불유심폰 대여

남원시는 자가격리자들이 안전보호 앱이 설치되지 않은 구형폰(2G폰 등)을 사용할 경우 선불유심폰을 대여해 주기로 했다.

시에 따르면 자가격리자 관리는 스마트폰에 안전보호 앱을 설치한 후 체온 등 증상유무를 입력하고 매일 4회 이상 전담공무원이 전화해 관리하고 있다.

또 안전보호 앱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유선 모니터링과 전담공무원의 불시 점검 등을 통해 격리장소 이탈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그러나 자가격리자가 안전보호 앱을 설치할 수 없는 구형폰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는 관리와 소통에 애로가 많은 실정이다.

시는 이에 따라 직원들이 집에 쓰지 않고 보관돼 있는 스마트폰을 기부 받아 선불유심폰 개통으로 격리기간동안 제공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진자의 증가에 따라 자가격리자 숫자가 늘어나는 만큼 무단이탈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본적인 여건부터 마련해 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영규 기자

머쉬라인(주) 식품클러스터 분양계약 체결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단단이 잇따라 분양계약으로 활기를 띠고 있다.

시는 21일 머쉬라인(주)과 전북도,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과 국가식품클러스터 투자협약에 이어 분양계약까지 체결했다.

머쉬라인(주)은 표고버섯을 최근 트렌드에 맞게 상품화하기 위해 지난해 신규 창업한 기업으로 갈송이 풍부한 기능성 표고를 사용해 표고 장조림, 표고 간장 등을 전문 제조하고 있다.

머쉬라인(주)은 총 3359.9㎡(1,018.1평) 부지에 약 31억원을 투자해 19명의 고용인원을 창출할 예정으로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침체된 취업환경과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투자협약을 통해 해당 기업은 건강식품인 표고에 갈송을 더한 기능성 표고를 원료로 한 식품제조를 위한 공장을 설립할 예정이다.

/유규창 기자

남원시,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시 10% 감면

환경개선부담금을 연납하면 10% 감면 혜택을 받는다.

남원시는 31일까지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은 납부자의 납부 부담을 덜어주고 자진 납부 의식을 높이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다.

매년 3월, 9월 연 2회 납부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1월과 3월에 연납신청하면, 10%를 감면 받을 수 있다.

연납신청 대상은 남원시에 등록된 경우 사용 자동차로 적용기간은 2020년 7월1일~2021년 6월 30일까지며, 이 기간 내 소유권 변경 또는 주소 이전 차량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남원시 환경과로 전화 또는 방문 신청하거나 인터넷 납부 시스템인 '위택스'를 통해 할 수 있다.

연납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가상계좌, CD/ATM기 납부, 전국 금융기관 및 인터넷납부(인터넷 뱅킹, 위택스, 인터넷 지로)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기한 내 환경개선부담금을 납입하지 못하는 경우 연납은 자동 취소되고 3%의 가산금이 발생한다.

/박영규 기자

한국의 꽃살문

지은이 이종근

한국 최초의 꽃살문 단행본 책자 | 방일영문화재단 출판 지원 대상 | '한국의 미 꽃문'에 이은 완결편 꽃살문 책자

본보 이종근기자가 23번째 저서로 펴낸 '한국의 미, 꽃문(신아출판사)' 방일영문화재단 언론인 저술 지원 대상을 받았다.

이 책은 시간이 갈수록 원형을 잃어가는 한국의 꽃살문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20여 년의 답사를 거쳐 선보이게 됐다. 꽃살문은 주로 교살문, 격자문살의 교차된 부분에 꽃무늬를 붙여 아름다움을 더해준다. 꽃으로 장식한 문창살을 이같이 부르며, 꽃살이 있는 문을 '꽃살문' 이 된다.

경주 불국사, 양양 낙산사, 오대산 월정사, 김천 직지사, 문경 대승사, 봉화 각화사, 남원 실상사 약사전 등 각종 사찰은 물론 궁궐, 그리고 청도 운강고택 등 양반가의 다양한 문양을 엿볼 수 있다. 예산 주사 김정희 고택, 전주 학인당, 정음 영모재, 김명관고택 등은 쉽게 만날 수 없는 만큼 담아냈다.

신아출판사 : (063) 275-4000

이 광고는 새전북신문이 지역사회의 문화, 예술, 관광 활성화를 위해 무료로 실어드리는 공익광고입니다.

한국의 꽃살문

지은이 이종근

대한민국 최초의 꽃살문 단행본! 그 두 번째 이야기

신아출판사